

# '경찰' 교통사고 접수 했더니 왜 보험?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고 접수 후 현장조사 없어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순창에서 광주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 바다에서 검은색 물체가 날아와 뒤따르던 A씨의 승용차 앞 범퍼 및 라디에이터 등을 충격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연막을 맞이하여 가족 모임에 참석차 광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 바다에 무언가 부딪히는 걸 느꼈으나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껴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 전북경찰청으로 전화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에 사고 경위 및 위치를 설명 한 후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고처리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 다음날(12월 26일) 오후 5시 20분경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으나, 같은 오후 8시 40분경 다시 연락이 와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더니 보험처리가 불가



사고차량 사진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길래 사고처리 상황을 몰았으나 영상만 확인하고 다른 수사 상황이나 조치는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에 사고현장 확인이나 CCTV 확인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항의했다.

다음날 A씨는 경찰관의 사고처리에 대한 안일함을 인지하고 12월 27일 오전 10시경 위험을 감수하며 고속도로 도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관스프링을 수거하는 CCTV영상을 보존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사고접수 당시 고속

도로 순찰대 9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사고현장 확인이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연락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문의 하였으나 사고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고 CCTV 확인 문의만 했었다고 답변 받았다.

A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의 인일한 사고처리 방식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관이 보험처리 여부를 묻지도 않았는데 보험 관련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보험처리 안 되니 자차처리하고 마무리 하지는 걸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또한 도로에 떨어진 물체로 인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고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처리 과정에 문제가 밝혀질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전화통화에서 사고접수 후 현장조사는 없었다고 사실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 임실군, 올해 356명으로 확대

임실군이 지역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6명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최초 도입 당시 54명 대비 약 7배(559%) 증가한 수치로,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22년 54명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103개 농가에 251명의 근로자를 배치해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 정책으로 높은 효용을 얻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촌인력팀장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임실군 계절근로

자 방문단이 베트남 뚜엔광성 업무협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면접과 선발 전 과정을 임실군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가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90명을 포함해 근로의욕과 숙련도가 높은 신규 근로자 170여 명을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신규 근로자 170여 명과 기존 고용 농가의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 18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임용돼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 남원시, '산후케어센터 다운' 첫 산모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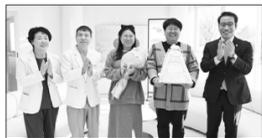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전북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에 12일 첫 산모가 입소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입소하는 산모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출산 산모로, 최경식 시장장은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산모와 가족을 직접 격려하고 출산 기념 육아용품 등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산후케어센터 다운'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산모실, 신생아실, 맘카페, 마사지실, 프로그래밍, 식당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남원시민을 비롯해 전 북도민과 지리산권(구례·곡성·함양·산청·하동군) 지자체 산모와 시민의 자녀까지 확대해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이며, 다둥이 출산 시민 등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는 70% 남원시민 50%, 전북도민 30%, 지리산권 산모 및 시민 자



녀 10%의 혜택이 적용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 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6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새해 새 정책 남원시 대표 홈페이지 통해 안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새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와 정책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주요 시책과 제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산업·농업·복지 등 8개 분야 88개 시책·제도가 담겼으며,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10건 △농촌·농업 9건 △문화·관광·교육 7건 △복지·건강 9건 △노인·장애인 7건 △아동·청년·외국인 13건 △주거·환경·안전 6건 △행정·시민생활 7건이다.

남원시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청년농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비 병행중 공동방제를 3회로 늘려 농업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비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관료·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제96회 춘향제 기간 관광 무료 입장과 차박존을 운영한다. 한옥숙박 스테이بل트 확장과 온라인 학습플랫폼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밖도

지원사업, 자살유족 위스톱 지원, 남성 단일 시술비 지원 등 촘촘한 복지·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병원동행·목욕비·맞춤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의치·임플란트 지원과 무상교통카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어르신 건강권과 이동권을 높이고, 아동수당·가정위탁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아이돌봄·여성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 도전·창업 지원과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지역기반 비자사업을 통해 인구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일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복지안전주택을 운영한다. 라돈 저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늘리고, AI 기반 도로안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다자녀가구 감면을 확대한다. 고형사립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민원실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하는 주요 시책·제도가 담긴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인산업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고령층 임플란트·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수술 전 사전문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미래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통계 첫 공표'

순창군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지역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5 순창군 청년통계 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통계는 순창군이 지역특화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추진한 통계로, 관내 19세부터 49세까지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총 73개 지표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실태와 변화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6,805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3,4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나타났다. 또한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 0.1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연계해 작성한 '행정(가공)통계' 방식으로 구축됐다. 특히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등 사회적 자원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 주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통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사업 30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곤충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곤충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 사업은 △곤충생산 안정화 지원사업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곤충사육을 위한 종충 및 먹이원 지원과 유용곤충 가공시설 건축 및 가공유통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법인으로, 곤충생산업 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곤충생산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곤충사육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